

# 오는 10월부터 무안~라오스 하늘길 열린다

무안군·공항공사·라오항공 협약 비엔티안·루앙프라방 주 2~4회 좌석수 20% 이상 직접발권 가능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도 협력

오는 10월부터 무안-라오스간 하늘길이 열린다.

전남도는 23일 무안국제공항 경쟁력 강화와 라오스와의 협력 등을 위해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라오스 국영항공사인 라오항공과 국제노선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라오스 비엔티안 노선은 오는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주 2~4회, 루앙프라방 노선은 오는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주 2~4회 운항한다.

편당 공급 좌석 수의 20% 이상을 도민이 항공권 검색 포털 등을 통해 직접 발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루앙프라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안국제공항에서만 직항으로 운영돼 타 공항 대비 큰 경쟁력을 갖춘 노선이다.

비엔티안은 라오스의 수도이자 약 500여 년 역사를 간직한 최대 도시로, 아름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라오항공과 '라오스 라오항공 무안국제공항 국제노선 개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비엔티안 노선은 오는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주 2~4회, 루앙프라방 노선은 오는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주 2~4회 운항한다.

운 불교사원으로 유명하다. 루앙프라방은 라오스 제2의 도시로 1995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을 만

큼 라오스 전통 양식, 수많은 불교 사원과 소수민족의 풍습 등 옛 모습이 잘 보존된 매력적 도시다.

전남도는 이번 무안-라오스 노선 개설로 관광 및 문화 협력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전남도는 지난해 7월 라오스 노동 사회복지부 차관과의 회담에서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개설된 노선을 통해 무안 국제공항으로 라오스 계절노동자들의 출입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항공사 운항장려금 등 파격적 재정지원과 무안군, 한국공항공사와 긴밀한 협력으로 올해만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이어 3번째로 라오항공과 국제노선 협약을 진행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21만명을 넘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실적이 크게 개선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올해 목표인 50만을 달성해 무안 국제공항이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우뚝 서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오항공은 1976년 설립돼 1989년부터 라오스 공공업무·교통부 산하 국영항공사로 운영 중으로, 올해 기준 한국을 비롯해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총 2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 전남농기원, 유자 부산물 활용 제품 개발

폐기물 소득자원화 연구·기술이전 화장품·박은 발포음료로 사업화

전남농업기술원이 지역 특화작목인 유자 소비 확대를 위해 가공 후 버려지는 부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유자는 레몬의 3배에 달하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으며, 구연산이 풍부해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다. 피로회복에 좋은 유기산 성분도 레몬, 매실보다 많다.

또한 과육이 많은 과일이지만 신맛이 강해 생과로 섭취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표적 가공제품으로 유자청과 즙이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생과를 착즙한 원액을 식품 중간소재나 음료 제품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연간 약 3000여 톤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유자씨와 유자박 등 산업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21년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 과수 육성 사업으로 유자 작목을 지정받아 연구와 제품 개발 등을 나눴다.

연구 결과 업사이클링 기술을 적용해 유자씨 오일을 추출, 화장품 소재로 탈바꿈시켰다. 화장품 효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용 조성물’로 특허 출원도 마쳤으며, 오는 9월 에스테틱 화장품 제조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상품화할 예정이다. 버려진 유자박을 이용한 발포성 제품도 개발했다.

한편 전남농업기술원은 유자 부산물 활용 산업화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고흥 두원농협과 3자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은 유자 가공 후 발생하는 부산물의 기능성 소재화와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유자씨를 소득자원으로 탈바꿈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올해는 유자씨 1톤을 오일로 추출, 식품 및 화장품 소재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에 힘으로 모으기로 했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그동안 가공업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애물단지였던 유자 부산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유자산업 활성화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靑 공무원들, ‘인권도시 광주’서 인권행정 연수

광주시, KOICA 공모 사업 진행 방글라데시 등 5개국 14명 참여

아시아 공무원들이 인권도시 광주에서 인권 및 인권행정에 대한 교육연수와 현장학습, 문화체험 활동을 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아시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등 광주 곳곳에서 ‘지방정부 인권행정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다국가 글로벌 연수 ‘지방정부 인권행정 역량강화’ 공모 사업에 광주시가 선정돼,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간 시행한다.

올해는 아시아 5개국 인권행정 또는 취

약계층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 인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인권친화적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인권 및 공공행정 교육을 한다. 참가 국가는 방글라데시(3명), 스리랑카(3명), 파키스탄(3명), 키르기스스탄(2명), 투르크메니스탄(3명) 등 5개국 14명이다.

이번 연수는 광주국제교류센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스웨덴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RWI)와 함께 진행한다.

연수 프로그램은 △인권의 역사와 기본 개념 △인권과 공공행정 △인권이슈 △인권행정 등으로 구성됐다. 또 국립5·18민주묘지 및 5·18사적지, 아시아문화전당(ACC) 등에서 현장학습과 문화체험도 실시한다.

이들은 또 광주시청을 방문해 광주시 인권행정 사례, 민주인권평화국장과 만남, 열린청사 투어 등도 진행한다.

광주시는 앞으로 국제인권교육을 통해 광주가 가진 인권 경험과 가치를 아시아 전역에 전파하는 등 인권도시 광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인권의 이해와 감수성 증진으로 조직 내 인권문화가 정착되고 광주 5·18 정신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인류 보편적 가치로 전파될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케냐공무원 29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노병하 기자

## 광주시, 10월까지 민생경제 현장소통

소상공인·상의 등과 간담회

광주시가 10월 말까지 지역의 민생경제 현장에 찾는 ‘민생경제 현장 소통’을 진행한다.

강기정 시장은 23일 “고금리로 인해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커져가고 내수시장 축소로 지역 건설업체 등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기업이 한 번 위기를 맞아 무너지면 다시 회생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가계가 무너지면 사회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을 돌보고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일은 지방정부의 역할이지만, 지금 상황은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

다”며 “당장 ‘소상공인 소통의 날’을 개최해 경제계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소상공인 소통의 날’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 등과 함께하는 ‘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반도체, 인공지능 등 9대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분야별, 다양한 협력기관과 전문가들도 만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지역경제 위기상황 대책 마련을 위해 ‘민생경제 현장 소통’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현장에서 경청·공감하고, 그 결과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곡성서 고향 발전 도정설명회 고향사랑 기부제 등 지원 다짐

전남도는 23일 곡성에서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광주전남시도민회 고향방문 및 도정설명회’를 개최하고, 향우들과 고향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강운성 광주전남시도민회장과 운영진 사무총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향우회원이 참석했으며, 전남도의 고향사랑 기부제 및 전남 사랑에(愛)서포터즈 등 도정 현안 소개에 이어 지역 발전을 위한 소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했다.

강운성 회장은 “곡성에 직접 찾아와 현장 도정 설명회를 열어줘 매우 뜻깊다”며 “광주전남시도민회는 전남도에서 역점 추진 중인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와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항상 전남의 현안 해결과 고향 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준 향우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가 시행 1년 반 만에 50만명을 돌파한 것은 향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nilbo.com